

중국, 아질산염 검출 미국분유 반송

아질산염 기준치 초과해 102톤 반송 ...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 우려

중국은 7월 중순부터 아질산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미국산 분유 102톤을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홍콩 문화보(文匯報)에 따르면, 8월24일 미국 West Farm이 생산하고 중국 한 식품기업이 7월10일부터 1달 간 3차례에 걸쳐 반입한 분유에 대해 추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00g당 아질산염이 각각 2.8mg, 4.4mg, 2.7mg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기준은 1000g당 2mg이다.

아질산염은 과다 섭취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은 각지 검역당국에 수입 분유 가운데 아질산염 함유량을 정밀 검사할 것을 지시하는 경고문을 하달했다.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5>